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김은경*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A Characteristic of Hyeonmoyangcheo-discourse for Education of Girls' School in the 1950s

Kim, Eun-Kyung*

Dept. of Humanit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Hyeonmoyangcheo*-ism (wise mother, good wife) in the 1950s, which were observed through the girls' school curriculums and homekeeping textbooks, were arranged as follows.

Firstly, *Hyeonmoyangcheo*-ism in homekeeping textbooks in the 1950s stressed the modern housewife. The Confucian women's virtues, such as submissiveness, faithfulness and *samjongjido* (obedience to father, husband and son), that were in girls' moral training and home management textbooks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This was a part of girls' education built on democracy and equality asserted by a new Korea, the 'modern nation'.

Secondly, with the increasing demands for women's labor after the Korean War, women's occupations were reinforced and incorporated in homekeeping textbooks in the 1950s. Even though having a job was a secondary task to the role of a homemaker, the details of women's occupation illu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Hyeonmoyangcheo*-ism in this period of time.

Thirdly, The resident practice program emphasized the tradition women's behavior along with the modern homemaker, the rational designer of homekeeping. This seems to have been reinforced from the criticism towards women based on Westernization after the Korean War.

Key word: 1950년대(1950s), 현모양처(Hyeonmoyangcheo), 근대(modern), 전통(tradition), 가사 교육(homekeeping education), 여학교 교육(girls' school education)

1) 교신저자: Kim eun-kyung, 52 Hyochangwon-gil Yongsan-gu, Seoul, 140-742, The Republic of Korea.
Tell: 02-710-9367 E-mail: eyes1000@sookmyung.ac.kr.

2)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2007)의 제3장 2절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해방 이후 민주주의가 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일제시기의 황민화정책에서 벗어나 근대 국가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를 교육이념으로 도입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평등주의의 원칙에 맞춰 여성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여성교육의 중심은 현모양처주의에 있었다.³⁾ 본 연구는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변화된 사회현실 속에서 1950년대의 현모양처주의가 여성교육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현모양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일제시기의 경우 그 근대적 성격(조경원, 1999; 홍양희, 2001; 전미경, 2004a; 김혜경, 2006)과 식민성(신영숙 2000; 홍양희, 2000)을 주로 강조하였고, 1950년대 현모양처에 대한 연구는 그 시기적 특성에 주목하였다(김혜수, 2000; 이임하, 2003).⁴⁾ 전자의 경우는 현모양처 담론이 근대(식민지)국가/근대가족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후자는 50년대 여성이 처한 담론적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전자는 현모양처에 대한 잘못된 통념(현모양처=봉건적 여성규범)을 이론적으로 반박하며 그 근대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한국에서의 현모양처주의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 규범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을 소홀히 다루었다.⁵⁾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제시기 현모양처론이 유교적 여성상을 일부 수용하였음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후자의 연구는 이전 시기와의 연속성/비연속성 속에서 50년대적 특질을 고찰하지 못했으며, 현모양처론의 재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사교육에 대해서도 분석하지 않았다.⁶⁾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되,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1950년대의 현모양처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등장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여성교육에서 현모양처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수립 후, 특히 한국전쟁 후 신생공화국을 수립해야 했던 50년대 국가는 여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제시기 수신교육에서 강조했던 순종·정절 등의 덕목을 지양하고 근대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실행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전후 증대된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 속에서 여성교육론의 핵심이었던 현모양처론이 어떠한 내용적 변화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둘째, 일제시기, 혹은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현모양처가 서구적 개념의 중산층 전업주부상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본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계몽주의적 문화운동이 유행하였던 일제시기나, 남녀평등의 민주주의적 요구가 거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현모양처에 '전통성'을 투영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한국에서 현모양처주의는 맥락에 따라 '근대적'인 전업 주부상이 더 강조되기도 하고, '전통적'인 부덕이 더 중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모양처가 '근대적' 여성상인가, 아니면 '전통적' 여성상인가 단정 짓기보다, 현실 속의 다양한 담론들 속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현모양처론이 실제 여성교육에서 합리적 가사설계자인 '근대적' 주부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전통적'인 여성상을 계속 차용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50년대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교과서를 일차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가

- 3) 주지하다시피 '현모양처'는 봉제사와 접민관을 위주로 한 봉건시대의 여성 역할과 달리,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역할을 중시한 개념으로서 근대 초기 등장한 새로운 주부의 상이다(일본에서의 현모양처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본적 특성을 강조한 深谷昌志(1981)와 근대적 보편성을 강조한 小山靜子(1991)의 연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 4) 김혜수와 이임하는 1950년대 현모양처가 가사전담자로서뿐 아니라,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 5) 일제시기 현모양처가 '근대적' 성격 외에 '전통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가야모토 아야(川本綾, 1999)의 연구를 참고.
- 6) 가사교육에 대한 역사적 분석으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조경원(1999)은 구한말의 여자수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여성교육이 현모양처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의 가사교과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전미경(2004b; 2005; 고상옥·전미경, 2006)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전미경은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가사교과서가 근대적 성별분업과 공사 구별을 완성시키는 도구로서 역할 하였음을 밝혔다. 이외에 50년대 여성교육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김재인 외(2001; 218-253)의 연구를 참고.

사교과서는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여성에 대한 전망과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담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시기 가사교과서의 전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1권의 가사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는 가사교과서의 주요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현모양처 이념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가사교과서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각 여학교의 교육이념과 학교에서 실제 시행하였던 교육을 생활관 실습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50년대 현모양처론의 특징을 가사교과서, 각 여학교의 교육 방침, 실제 교육 내용(생활관 실습)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교과서에서 당위적으로 설명하는 교육담론과 실제 교육이 어떻게 조우하면서 1950년대의 현모양처론이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다.

1. 1950년대 가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모양처 이념

1) 가사과의 교육 목표의 변화

해방 이후 민주주의가 교육이념으로 채택되면서 교육기회의 남녀평등이 보장되었다. 미군정기에는 남녀의 교육적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교육의 빈약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녀공학제를 추진하였으며, 1949년 12월에는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였다(공보처, 1949; 1-6). 해방 후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따르는 교육제도의 변화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차별적 요소를 많이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50년대 여성교육의 내용은 이전 시기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일제시기 여성교육은 봉건적 여성역할을 비판하고 '근대적' 현모양처 역할을 중시하였지만, 여전히 여학생 수신교과

서에서는 '순결한 부덕'(조선총독부, 1939; 40-41)과 '삼종지도'를 고유한 '전통'으로 옹호하였다(조선총독부, 1940; 60-63). 가사교과서는 가정개량을 책임지는 '근대적' 주부 훈련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지만, '가정주부'의 훈련이 단지 정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石澤吉磨·常見育男, 1939, 61-62), 가사교육 역시 여성 수신교과서의 기본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⁷⁾ 이처럼 일제시기 현모양처 교육은 '국가도덕-가정도덕'을 중심으로 한 수신교육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사설계사의 양성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규율 면에서는 '순종적인 부덕'과 같은 재래의 여성 덕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교과서에서는 순종·삼종지도·정조 등과 같은 봉건적 여성 규범에 대한 서술은 삭제되었다. 물론 현모양처 교육에서 '부덕'을 자주 거론하기는 했지만, 노골적으로 여성의 절개나 삼종지도를 교과서에서 강조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해방 이후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였다.

해방 후의 교과서는 형식적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인격적인 예속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근대적' 성별 분업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서 현모양처를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가사교육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제도화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대한가정학회장이었던 표경조와 문교부 편수관이었던 주월영은 가사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표경조 외, 1956c).

- 가정이 과학화, 이상화, 민주화를 꾀하여 진보된 가정을 이룩하고, 잃었던 여성의 인권을 찾아서 진정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 사변으로 오는 국내 경제 정세에 비추어 가정경제 생활의 사회적 중대성을 강조하고, 참다운 가정주부가 될 수 있도록 뜻하였다.
- 연합군 진주와 더불어 급속도로 주입된 외국 풍조에 대하여 자칫하면 잃기 쉬운 고유한 미풍양속에 대하여 비판 반성하도록 노력하였다.
- 여성의 직업생활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판단으로써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략)

7) 194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중등가사교과서는 그 목표에 대해 "우리나라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자의 임무를 알리고, 실무를 수련시키며, 정조를醇化하고, 황국여성의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편찬"하였다고 하였다(조선총독부, 1941; 緒言 1).

위의 예시문에서 보이듯, 가사교과의 목표는 “이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참다운 가정주부”를 교육시키는데 있었다. “한국 가사교육은 한국 부도(婦道)의 수련이고 한국 여자교육의 중추”(김옥분, 1955)라는 주장처럼, 1950년대 가사교육의 주된 목표는 무엇보다 현모양처의 양성에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일제시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즉 유교적인 여성 규율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잃었던 여성의 인권을 찾아서 진정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 가사교과서는 현모양처의 양성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면서도 여성의 직업생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전쟁과 전후복구로 인한 남성동원과 실업의 만연이라는 당

시 사회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당시 가사교육은 직업여성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이상적’ 가정을 실현시킬 여성 주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50년대 가사교육은 평등주의/민주주의적 가치를 일부 수용하여 봉건적 여성규범을 극복하고 ‘근대적’ 성별분업에 의거한 가정주부를 육성함을 목표로 하였으며, 또한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력을 겸비한 여성을 양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사교과서의 주요 내용과 ‘현모양처’론

1950년대 실업가정과 교과서 가운데, 농업·공업·상업·

〈표 1〉 1950년대 중·고등학교 가사교과서의 주요 내용

	교과서명	의	식	주	입신·출산	육아	간호·보건	가정경제	미용	직업	전체분량
중 학 교	이흥수 외, 『모범 중등가정 I』(1957)	52쪽 (24.8)	61쪽 (29)	0쪽 (0)	0쪽 (0)	0쪽 (0)	0쪽 (0)	5쪽 (2.4)	0쪽 (0)	4쪽 (0)	210쪽
	이흥수 외, 『모범 중등가정III』(1957)	46쪽 (23.7)	34쪽 (17.5)	22쪽 (11.3)	2쪽 (1)	33쪽 (17)	9쪽 (4.6)	11쪽 (5.7)	0쪽 (0)	20쪽 (10.3)	194쪽
	조기홍 외, 『즐거운 가정생활2』(1956)	40쪽 (18.7)	67쪽 (31.3)	21쪽 (9.8)	8쪽 (3.7)	0쪽 (0)	25쪽 (11.7)	11쪽 (5.1)	0쪽 (0)	8쪽 (3.7)	214쪽
	조기홍 외, 『즐거운 가정생활3』(1956)	44쪽 (21.6)	53쪽 (26)	23쪽 (11.3)	0쪽 (0)	22쪽 (10.8)	0쪽 (0)	20쪽 (9.8)	0쪽 (0)	10쪽 (4.9)	204쪽
	손정규 외, 『가사교본3』(1950)	56쪽 (40.9)	27쪽 (19.7)	10쪽 (29.2)	0쪽 (0)	0쪽 (0)	0쪽 (0)	8쪽 (5.8)	0쪽 (0)	0쪽 (0)	137쪽
고 등 학 교	이흥수 외, 『모범 고등가정 I』(1958)	146쪽 (60.3)	90쪽 (37.2)	0쪽 (0)	0쪽 (0)	0쪽 (0)	0쪽 (0)	0쪽 (0)	0쪽 (0)	0쪽 (0)	242쪽
	이흥수 외, 『모범 고등가정 II』(1958)	89쪽 (43.4)	70쪽 (34.6)	40쪽 (19.5)	0쪽 (0)	0쪽 (0)	0쪽 (0)	0쪽 (0)	0쪽 (0)	0쪽 (0)	205쪽
	이흥수 외, 『모범 고등가정III』(1958)	76쪽 (38.4)	26쪽 (13.1)	0쪽 (0)	9쪽 (4.6)	24쪽 (12.1)	16쪽 (8.1)	13쪽 (6.6)	20쪽 (10.1)	0쪽 (0)	198쪽
	표경조 외, 『이상적인 가정생활 고 I』 (1960)	98쪽 (36.8)	112쪽 (42.1)	0쪽 (0)	0쪽 (0)	0쪽 (0)	51쪽 (19.2)	0쪽 (0)	0쪽 (0)	0쪽 (0)	266쪽
	표경조 외, 『이상적인 가정생활 고II』 (1960)	105쪽 (52.2)	45쪽 (22.4)	43쪽 (21.4)	0쪽 (0)	0쪽 (0)	0쪽 (0)	0쪽 (0)	0쪽 (0)	0쪽 (0)	201쪽
표경조 외, 『이상적인 가정생활 고III』(1956)	48쪽 (16.7)	33쪽 (11.5)	2쪽 (0.7)	13쪽 (4.5)	25쪽 (8.7)	0쪽 (0)	31쪽 (10.8)	27쪽 (9.4)	6쪽 (2.1)	288쪽	

참고: 괄호 안의 숫자는 비율임.

수산 등의 정규 교과서는 국정이었으며, 나머지는 검정이었다. 1958년 4월 1일 현재, 검정된 실업가정과 교과서는 중학교가 5종 13책, 고등학교가 3부분 37종 60권이었다(문교부, 1958b; 176).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에서 4종, 11권의 중·고등학교 가사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가 분석한 1950년대 가사교과서의 주요 내용과 서술 비중은 다음의 표와 같다.

1950년대 가사교과서는 의식주, 임신·출산, 보육, 미용, 가정경제, 직업 등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교과서의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학년별로 수준을 달리 서술하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용 교과서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러나 의식주에 관한 항목은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교과서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가사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생활에 대한 항목에서 여성은 '잠재적 주부-현모양처'로 규정되어 있었다. 여학생인 '나'는 "어머니의 조력군, 아버님의 가장 만만한 시종군, 오라버니의 좋은 동무인 동시, 시종군 동생들의 어머니 대용의 존재인 동시 든든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었다(표경조 외, 1956; 140). '나'는 집안에서 학생인 동시에 '주부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와 같이 '주부 연습'의 연장선에서 여성은 '자연스레' 현모양처로서 규정되었다. 가사교과서는 남편의 시중을 들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하는 것을 주부의 역할로 설명함으로써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여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켰다.

가사교과서는 "남편인 남자는 생활의 자금을 얻기 위하여 가정 외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아내는 가정에 있어서 가정생활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담하는 것이 보통의 격식"(표경조 외, 1956; 3-4)이라고 전제하면서, 여성은 가정이 편만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여성은 남편의 노동력 재생산을 도움으로써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노동이 비생산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고(표경조 외, 1956; 5), 남녀는 "노동이나 일의 종류와 장소가 다를 뿐, 그 가치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표경조 외, 1956; 211)이라고 하여 이것을 성차(性差)에 의한 '합리적인' 역할 분

담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가사교과서에서 강조된 여성상은 근대 가족의 이상을 구현하는 주부상, 즉 현모양처였다. "일단 결혼하면 양처(良妻) 현모(賢母)로서 국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표경조 외, 1956; 151)는 주장처럼, 현모양처는 잠재적인 주부로 상정된 모든 여학생들의 실천 규범으로 제시되었고, 여성이 '국민'이 되는 통로로 설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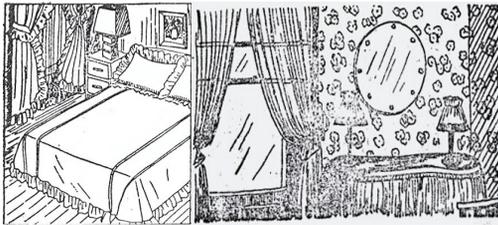
둘째, 의식주 항목은 가장 비중이 높았고, 실습과 전문적 이론을 강조했다. 양재나 수예, 음식조리법, 방안 정리 정돈법 등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실습을 강조하였고, 옷감의 종류, 세탁, 염색, 영양, 주택관리 등의 내용은 이론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의복과 관련해서는 옷감이나 원사의 종류, 직조방법, 직물의 성능, 그리고 세탁의 방법과 세제의 종류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였고, 식생활에서는 각종 영양소와 비타민에 대한 소개를 풍부하게 했다. 주생활은 '문화생활'에 맞는 주택구조와 평면도를 소개하고 직접 이를 그려보는 항목도 있었다(조기홍 외, 1956b; 16-20). 이론에 대한 강조는 현실적 필요성보다는 주부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의식주 항목에서는 가사노동의 전문성 외에 의식주의 개량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일제시기의 가정개량론처럼, 주부(여성)의 주도성을 강조하였다. 가정주부는 의식주 개량의 주체로 설정되었고, 이를 위해서 주부의 가사노동 구조와 의식을 개조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계통화 시키고 계획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표경조 외, 1956; 221).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가사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서양식 의식주 모델을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는 서양식 요리뿐 아니라 서양식 상 차림법, 양식 먹는 방법, 테이블 매너 등을 삽화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진보된 서양식 요리를 도입하여서 식단에 변화를 주"자는 주장은(표경조 외, 1960b; 3) 의식주를 개량하자는 답론이 '합리화'의 차원을 넘어 서구 문화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모방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거공간에 관한 단원에서는 입식화 된 부엌과 응접실이 있는 거실 외에 침대, 쇼파, 커튼, 소형 전등 등이

삽화로 실려 있었다. 이러한 개량론에서는 단지 생활의 편리와 효율성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가구의 배치 문제나, 벽지 선택, 커튼의 사용 등, 집안 꾸미기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림 1〉 가사교과서의 실내 장식 삽화

자료: 표경조·주월영, 1960a; 76-77.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몇몇 삽화들은 당시 일반인들의 생활수준과 현격히 유리된 것이었지만, 그 시각적 강렬함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소비 욕망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물론 종래의 가사교육이 “유한계급, 특수계급의 생활을 표준으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김옥분, 1955; 이길상·오만석, 2002, 877), 실제 교과 내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가사교과서는 생활개선의 차원에서 의식주의 ‘근대적’ 개량을 도모하였지만, 실제로 상당 부분은 소수의 도시 상류층에게나 가능한 삶의 방식을 이상적인 생활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여학생들에게 도시 상류층 가정을 문화적이고 이상적인 모델로 인식시킬 뿐 아니라, 소비주의적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여성에게 허영과 사치의 표식을 부여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던 50년대의 사회담론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모순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셋째, 가사교과서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가사교과서는 가정을 “다음 세대를 메고 나아갈 국민을 기르고, 교육시키는 장소”로(표경조 외, 1956; 6), 여성을 아동을 기르고 교육시키는 양육자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의 몸가짐, 해산 준비와 해산, 갓난아기 다루기, 젖먹이의 시중(젖먹이는 시간과 횟

수), 젖떼기, 유아의 시중, 어린이 교육 등의 내용이 서술되었다. 발육 상태에 대해서도 월령별 체중, 신장, 두위, 흉위 등의 성장기준표가 제시되었으며, 치아 발육, 정신발육, 시각·청각·언어 발육 등도 서술되어 있었다. 또한 어린이의 질병에 대해서도 소화불량, 감기, 유아각기병, 배꼽병, 아구창, 귀젖(귀병), 경련, 회충 등과 홍역, 백일해 등의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도 발병원인과 그 치료·예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표경조 외, 1956, 60-82; 이홍수 외, 1958c, 77-101).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직접 여성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역할을 중시하였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집에서 “이야기, 그림책, 유희(Game) 등으로 말씨, 역사, 지리, 잇과 등의 단편적 지식을 넣어줄 수가 있”고, 취학 아동은 유쾌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함께, 예습과 복습을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부형회, 자모회는 물론 그 외 기회가 있으면, 학교를 찾아가서 자녀의 공부하는 상황을 참관하고, 교육상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가정의 희망도 말하는 것이 좋다”면서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에 가정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표경조·주월영, 1956; 83). 그런데 1950년대 사회 담론에서 자모회는 극성스런 ‘유한부인’들의 활동으로 인식되어 자주 논쟁의 도마에 올랐던 문제였다(양벽파, 1958; 206). 당시 가사교육에서 자모회 참여를 비롯한 아동교육에의 적극적 간여를 ‘현모’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던 점은 이 시기 사회담론과 여성교육의 괴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가정 간호에 관한 항목이 독립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가정주부는 가족의 체질을 알아서 병에 대한 저항력의 증진을 꾀하고 질병의 미연방지에 노력”해야(이홍수 외, 1958c; 150) 한다면서 가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질병을 관리, 간호하는 역할까지 여성에게 부여하였다. 집에 비치해야 할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소개와 간호의 태도(의사의 지시 따르기, 증세살피기, 환자의 시중들기 등), 병실관리, 집안 소독 등이 소개되었다. 간호 단원은 육아나 아동교육의 역할을 확장하여 여성의 보살핌 노동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8) 1950년대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각종 여성단체들의 고아원·양로원·부랑아교도시설·군부대 등에 대한 위문방문과 자선활동은 여성의 보살핌 노동이 사회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가정은 국가 생산의 소비지”라는(표경조 외, 1956; 176) 인식 하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주부의 역할을 중시했다. 이 단원에서는 가정이 고립된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와 관계를 갖는 중요한 경제 단위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 경제와 가정경제, 수입, 가정생활의 안정과 수입, 가정의 지출, 가정회계, 가정의 경제준비(재테크), 예산계획, 가계부, 재투자(예금, 보험, 유가증권 구입 등) 등에 대해 서술했다(표경조 외, 1956; 200-206). 이 단원의 학습목표를 “일반 경제와 주부와의 관계를 살피고, 주부의 수완능력 여하에 따라 가정의 수입 지출을 좌우하고, 이어 국가 경제를 좌우한다는 반성을 갖도록 하자”로(표경조 외, 1956; 174) 설정함으로써 소비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였다.⁹⁾ 여성을 소비의 주체로 설명하고 있는 이 단원에서는 소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재산의 증식의 역할까지 포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현모양처 역할이 단지 육아와 내조, 가사일(의식주를 위한 육체노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미용이 독립적인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한 가사교과서에서는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미용은 몸을 단정히 하는 부덕의 하나로서 부인의 문화생활의 조건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면서(표경조 외, 1956; 254) 미용에 대한 교육이 사치가 아니라 “여성으로써 절대로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에 머리감기, 머리 염색, 파마, 화장법 등을 소개하였고, 신체의 표준 비례를 서양 여성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기도 했다(“한국 여성과 구미여성과의 체구비”, “각국 여자의 下肢 길이의 비교” 등). 또한 ‘한국 여성의 체미’에 대해 ‘아름답게 보이는 점’(“좁고 탄탄한 어깨”, “정숙하고 압전한 동작”, “작은 손과 발”, “아름다운 젓통” 등)과 ‘보기 싫은 점’(“신장에 비하여 머리가 크다”, “비교적 다리가 짧다”, “허리가 늘씬하지 못하다”, “가슴이 넓적하다”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이흥수 외, 1958c; 183-184). 그리고 각 동작의 그림을 덧붙인 미용제조법(“허리를 날씬

하게 하는 운동”, “궁둥이와 다리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운동”, “궁둥이가 나오지 않게 하는 운동”, “몸이 뚱뚱해지지 않게 하는 운동” 등)까지 상세히 소개하였다(이흥수 외, 1958c; 181-198).

신장에 비해 머리가 크거나, 혹은 다리가 짧은 것, 허리가 늘씬하지 못한 것 등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용 단원이 단지 “몸을 단정히 하는 부덕”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것은 여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라는 주문이자, 사회의 왜곡된 미의 기준을 여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이었다. 가사교과서를 통해 규격화된 ‘여성미’를 선전하는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요구를 여학생들에게 강제하고 내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0년대의 미스코리아대회와 일부 여대의 ‘메이퀸’선발대회 등의 시행은 이것을 더욱 부추겼을 것이다.

미용 단원에서는 화장법, 미용법, 파마, 장신구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였는데, 특히 이것들은 사회에서 ‘서구문화에 물든’ 여성을 비판할 때 자주 거론되는 상징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림 2〉 가사교과서에 소개된 유행형 머리

자료: 이흥수 외, 1958c; 194.

1950년대에 파마는 새로운 유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편리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선호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파마하고 화장한 여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특히 소설 『자유부인』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논쟁의 도마에 오르면서 댄스와 함께 양풍의 차림새를 한 여성은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대법원장이었던 김병

9) 1950년대 후반 서울과 농촌에서의 사회학적 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경우는 소비권이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남편에게 있는 경우’는 65%였는데 반해(고황경 외, 1963; 46), 서울에서는 ‘전적으로 부인에게 있는 경우’가 66.4%였다(이효재, 1959; 37). 따라서 50년대 도시에서는 대체로 소비권이 여성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는 파마는 원래 머리를 걷어 올릴 줄 모르는 ‘야만적’인 서양에서 고안해 낸 것인데, “큰 좋은 것이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서 이것을 모방하느라고 야단”이라며 파마를 하는 것을 서구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라고 비난하였다(김병로, 1957; 280). 사상계 지식인이었던 김하태는 여성들이 파마를 하거나 하이힐을 신는 것을 거론하며 “여자들의 몸치장에는 아메리카니즘의 표식이 현저하다”고(김하태, 1959; 66) 비난하였다. 이렇게 사회가 맹비난을 퍼부었던 사치와 허영, 서구 추종주의의 상징들(화장, 파마, 하이힐)은 교과서에서 여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정식 교과 내용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있었다.

일급제, 직업에 대한 단원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전망과 직업의 종류, 직업 선택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여성의 직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으로 남편(혹은 아버지)의 수입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사정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직업 단원의 목표는 “독립,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하는 준비”로 설정되었다(조기홍 외, 1956b; 194).

교과서에서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성이라는 ‘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무거운 짐을 나르지 못하거나, 지적인 면이 남자보다 낮은 것이 여성의 생리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조기홍 외, 1956b; 198).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 직업은 타이피스트·경리·비서 등의 사무직, 미용사·간호사·양재사와 같은 기술직, 교사·의사·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그리고 공장 노동자 등이었다(조기홍 외, 1956b; 202-204).

그런데 당시 가사교육은 현모양처 교육을 중심에 두고 여성을 잠재적인 주부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여성 역시 ‘주부’임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가사 교과서에서는 직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혹은 결혼 이전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표경조 외, 1956; 285-286). 이는 여성의 직업이 남편의 수입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50년대 가사교과서는 여성 직업에 대해 이전 시기에 형식적으로 언급했던 수준을 넘어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것은 전후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자질을 ‘현대적’ 현모양처의 일환으로 간주하였던 당대의 현모양처 인식에 기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950년대 가사교과서의 현모양처 교육론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 가사교과서에서의 현모양처론은 일제시기 가사교과서나 여자수신 교과서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봉건적 여성규범을 배제하고 현모양처 역할을 여성의 ‘직분’으로 설명하였다. 일제시기 교과서에서 직분론과 봉건적 여성 규율이 동시에 강조되었다면, 50년대 교과서에서는 재래의 예속적 여성규범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형식적인 차원이라 할지라도 신국가 건설의 의제로 등장한 민주주의가 교육이념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사교과서는 여성 직업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여성에게 가사 관리자뿐 아니라 생계 담당자(보조자)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부과하였다. 1950년대 가사교과서는 여성을 일차적으로 주부나 어머니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여성의 직업을 옹호했지만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가족의 협조와 모성보호를 주장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여성들의 직업 활동을 가계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운용하는 ‘현대적’ 현모양처의 역할 안으로 수렴하였다.

셋째, 1950년대 가사교과서에 서술된 현모양처론은 가정개량을 책임지는 근대적 전업주부 역할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서구적 생활방식을 이상화하고 소비자본주의적 욕망을 부추겼다. 이같이 현실과 유리된 현모양처론이 여학생들에게 교육됨으로써 50년대의 여성에 대한 비판담론(여성인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담지자, 혹은 미국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자라는 비판)과 모순을 이루었다.

2. 1950년대 여학교의 ‘현모양처’ 교육

1) 여학교의 교육이념과 목표

1950년대에는 평등주의와 민주주의를 교육이념으로 채

택하였지만, 실제 여성교육에서는 여전히 남녀의 '합리적 인' 역할분담론(직분론)에 의거하여 현모양처주의를 중시 하였다. 대학의 교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두현 숙명여대 총장은 “현모양처라는 이념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기본이념”이라고 전제하면서,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의의에서 현모양처의 이념은 말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김두현, 1959; 81). 이화여대 사범대학장인 서명원도 “남녀 동권이라면 남녀가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진 국가’의 여권운동 지도자들도 ‘한 때의 과오’를 재인식하고 주부로서의 임무를 중시한다고 했다(서명원, 1957; 205). 이들은 모두 과거의 봉건적인 여성 역할에는 반대하고 남녀평등론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현모양처주의를 여성 교육의 주요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각 여학교의 실제 교육이념은 어떠했을까. 해방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건설에 맞는 학교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초토화되었던 학교 건물을 다시 짓고 학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들은 교육 이념과 교훈을 새로 제정하였다. 1950년대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었던 여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이념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서울시내 13개 여학교의 교훈에서 ‘부덕’을 명시한 학교는 승의여고 한 학교뿐이었고, 동덕, 배화, 성신, 승의, 진명 등의 5개 학교는 ‘부덕’이나 ‘현모양처’를 교육방침에서 언급하였다. 그 밖의 학교들에서는 진실, 노력, 화합, 자유, 사랑, 믿음, 덕성, 예의 등, 다분히 추상적인 덕목을 교훈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부

<표 2> 1950년대 서울 소재 여학교의 교육목표 및 교육이념

학교 이름	교 훈	기 타
경기여고	진·선·미	
덕성여고	사랑	
동덕여고	1. 덕성을 함양하자 2. 예의를 존중하자 3. 책임을 완수하자 4. 건강을 증진하자 5. 재건에 협력하자	해방이후 교육방침: 1. 우리민족의 중대사명을 철저히 인식하여 용진분투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건설에 기여하게 함. 2. 신체를 연마하며 건강을 증진하게 하고 고도의 활동능률을 발휘하게 하며 아울러 견인발발(堅忍不拔)의 기백을 갖게 함. 3. 은화정숙한 부덕과 근각질소(勤格質素)한 부도를 함양함 4.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양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5.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함. 6. 사회생활에 필수한 지식 기능을 계발하여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경애의 정신을 갖게 하여 우리 여성을 세계수준으로 향상 도모함.
무학여고	1. 지성으로 몸을 닦자 2. 지성으로 덕을 기르자 3. 지성으로 학술을 연마하자 4. 지성으로 사회에 봉사하자 5. 지성으로 나라를 통일하자	
배화여고	신(信):인격완성은 믿음으로 망(望):인류행복은 소망으로 애(愛):생활실천은 사랑으로	학칙(제1장 총칙) 본교는 기독교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민주주의 사회의 부덕을 함양하여 그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민주사회 및 국가의 형성자가 되게 하며, 나아가서는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성신여고	1. 자기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 육성 2.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하여 협동봉사할 수 있는 인물 육성 3. 자학과 자습으로 깊게 배워 이를 실행하는 인물 육성	지도 방향: 1. 생활교육 1)생활인의 환경(정리정결, 미화, 이용, 절조) 2)도의-국민적 긍지, 봉사, 부덕(고유한 대한의 부녀도덕에 우월감을 가지게 한다) 3)지식 2. 사상교육 3. 지식교육

<표 계속>

학교 이름	교 훈	기 타
수도여고	정직하고 건실하고 명량하여 태양 같은 여성이 되라	
숙명여고	1. 밝고 다습고 씩씩하게 2. 나라를 사랑하자 3. 민족을 사랑하자 4. 자기와 가정과 학교를 사랑하자	
승의여고	1. 경건한 여성이 되라 2. 적은 일에 충성하라 3. 부덕을 높이라	
영등포여고	진실하자 노력하자 화합하자	
이화여고	자유·사랑·평화	‘순결·희망·발전’이라는 교육이념이 해방이후 자유 사랑 평화로 바뀜.
정신여고	1. 굳건한 신앙의 함양 2. 고결한 인격의 함양 3. 희생적 봉사정신의 함양	
진명여고	진실: 순일한 진실성을 지니자 협조: 장대한 협조심을 넓히자 창의: 풍부한 창의력을 기르자	교육방침: 1. 신체의 건전한 발달과 그 유지에 필요한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정숙한 부덕을 함양한다. 2. 구도력(求道力)과 과학심을 배양하며 도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3. 근검역행하여 유능한 치산자(治産者)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수립하게 한다. 4. 고상한 예술을 애상하고 자연의미를 즐기며 시간을 유효하게 써서 명량한 가정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주를 애호하며 책임을 존중하고 호경상혜(互敬相惠)하여 화해한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계승 양양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7.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함에 봉사하며 나아가 인류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창덕여고	아름다운 여성 슬기로운 여성 부지런한 여성	

자료: 1950년대 서울 소재 주요 여학교의 교지 참고.

분의 여학교는 교훈에서 여성의 부덕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부덕”이나 “정숙한 부덕” 등으로 다양하게 현모양처주의를 표방하였다. 즉 교육목표나 이념에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이 강조된 경우가 많았다.

1957년 문교부가 지정한 연구학교의 공개 발표 사항을 보면, 연구학교로 지정된 배화여자중학교의 경우(지도장학관 현병진) “부덕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적 생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주제 밑에 여자교육에 있어서 도의교육의 차지할 위치에 대하여 진지한 연구가 있었고, 연구학교로서의 면목을 일신케 하였다”라는(문교부, 1957; 72-73) 기록처럼, 남학교와 달리 여학생 교육의 ‘특성’을 ‘부덕’에서 찾았다.

또한, 숙명여고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도의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조’, ‘정숙’과 같은 덕목을 강조하였다. 숙명여고는 ‘도의’ 교육을 위해 ‘나의 심고’라는 실천항목을 정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휴대용 소책자를 만들어 조례마다 낭독하게 하였다. 그 실천항목 31가지 가운데에는 ‘지조를 지키자’, ‘정숙은 여성의 높은 덕이다’와 같은 규범이 포함되어 있었다(숙명여자중고등학교, 1976; 253).

그리고 교장이나 교사의 평상시 설교에서도 현모양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 여고의 손정순 교장은 이임사에서 “너희는 모두 현모양처로 자랄 것이며, 학교를 빛내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했다(영등포여자고등학교·영등포여고동창회, 2003; 50). 이처럼 때로는 현모양처가 학생들에 대한 덕담의 차원에서

강조되기도 했다. 한 여학교 교사도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글에서 “학교에서 배운 진선미의 이상을 현실과 나의 것으로 끌어내려서 일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그 유대는 행주치마가 해줄 것”이라고 했다(정재인, 1960; 75). 이와 같이 50년대 여학교의 교훈과 교육이념은 대부분 추상적인 덕목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교육방침과 교육과정에서는 ‘부덕’, ‘현모양처’와 같은 규범을 강조하였다.

2) 생활관 교육: ‘근대적’ 주부역할과 ‘전통적’ 규범의 강조

1950년대 현모양처 교육은 실제 생활관 실습교육을 통해 ‘전통적’ 여성규범과 ‘근대적’ 현모양처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학교 건물이 다시 재건될 즈음인 50년대 후반, 몇몇 여학교에서는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실생활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전통’ 예절을 전수시키겠다는 취지 아래 생활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성신여고의 경우 “협동생활을 경험케 하고, 자칫 잃기 쉬운 우리나라의 전통적 미풍양속과 부덕을 배워, 애교심과 봉사, 더 나아가서는 대한의 딸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게 할 목적으로 1958년 12월 경기도에 생활관을 만들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5일간 실습교육을 시행하였다(성신 50년사편찬위원회, 1989; 46-48). 배화여고에서도 “실사회와 가정의 실질적인 모든 설비와 제도를 축소 구비한 생활관을 신설하여 학생 생활의 일층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습득 체험하도록” 하였고(배화여자중고등학교, 1958; 465), 수도여고에서는 예법실을 운영하여 상 차리는 법, 큰절 하는 법 등의 전통예절을 전수하였다(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수도여고60년사발간위원회, 2006; 175).

여학교에서 생활관 실습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학교는 창덕여고였다. 창덕여고는 부산에 피난 중이었던 1952년, 67명이 함축할 수 있는 생활관을 만들어 3일간의 숙식을 통해 예의범절, 식탁 꾸밈, 음식하기, 청소하기 등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환도 후인 1956년에는 실제 주택 모형을 짓고 본격적인 생활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창덕여고의 생

활관이었던 선화료의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창덕여자고등학교 동창회, 1995; 123-124).

- (1)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수선화를 상징하며 청초하고 순정한 현대적 부덕의 함양과 적응, 원숙한 실질적 생활기술을 연마한다.
- (2) 여성으로서의 인격도야 및 건전 원만하고 절제가 있으며 현대생활에 호응할 수 있는 간소한 생활의 기초훈련에 주력한다.
- (3) 정숙·명랑·친애·근면을 모토로 한 부덕의 소지를 함양하여 가정의 화목 유지에 기여하게 한다.
- (4) 청결 아담하며 위생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개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한다.
- (5) 개성계발과 가정생활 근대화를 중점 지도한다.

‘현대적 부덕 함양’을 목적으로 한 선화료에서 학생들은 앉고서기, 문 여닫기, 식사예절, 침구관리, 침침예절, 청소방법, 과일 깎는 법, 차 따르기, 인사하기, 방문예절, 전통예절, 화장실 사용법 등을 교육받았다.

단층 양옥으로 지어진 선화료는 실내장식, 옷장, 책상, 책장, 식탁, 식기장, 다리미대, 부엌설비, 청소도구장 등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된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선화료에서는 많은 가사과 담당 교사들의 연수가 시행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교육내용은 좋으나 시설이 현실과 너무 격차가 있어 이 교육을 받은 학생이 자기 집에 가서 응용할 수 없어 신경질을 내거나 생활관 같은 집으로만 시집을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창덕여자고등학교 동창회, 1995; 136).

이처럼 여학생들은 생활관 실습을 통해 “그림책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근대’ 주택에서 ‘전통적’ 예절을 교육받았다. 따라서 생활관 실습을 통한 여성교육은 ‘근대적’으로 구비된 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여성을 육성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규범을 체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것은 50년대 여성교육의 지향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교부는 창덕여고의 생활관 실습교육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생활관 교육은 문교부의 지원에 힘입어 점차 확산되었다. 문교부는 여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장학방침으로, 각 학교에 생활지도관을 신설하게 하고 “부덕을 연마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였다(문교부, 1956.6, 194; 문교부, 1958a, 104). 그리고 생활지도관을 담당할 교사들의 교육을 위해 “여자 장학사의 연수회, 생활지도관 담당교사 연수회, 가정과 담당교사 연수회를 개최하는 동시 각 도에서 연 1회 개최토록 한다”고 규정하였다(문교부, 1958b; 212-213). 이에 1957년에는 각 시·도 장학사와 가정과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강습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연수는 “각 시·도에 설치된 생활지도관 담당교사의 지도력 향상을 강화하는 동시 가정과 담당 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덕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다(문교부, 1957; 81-82).

문교부의 생활교육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강화된 생활관 교육은 실제 생활관의 운영프로그램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창덕여고가 모범 사례로 선전되었던 것을 볼 때, ‘합리적 가사설계사’로서 ‘근대적’ 주부상과 ‘전통적’ 예법을 체화한 여성이 실제 교육이 지향하고 있던 바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생활관 교육을 통해 볼 때, 1950년대 현모양처 교육은 ‘합리성’을 가진 ‘근대적’ 현모양처만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주부상을 지향하면서도 이것에 ‘전통성’을 부여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신사회의 현모양처상을 일컫는 “민주적 현모양처”를 강조하는 문교부 장학관 현병진의 글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적인 현모양처가 되려면 올바른 여권확립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여권존중의 진가가 奈邊에 있는가를 자각하는 동시에 어찌까지나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부덕(婦德)을 간직하는 여성이 될 것이 첫 조건인 것이다(현병진, 1957; 40).

현병진은 이전의 봉건사회나 일제하에서는 정적(靜的)이고 종적(從的)인 여성을 찬미하였기 때문에 여성 인권이 유린된 채 “남편의 성화를 받치는 존재가 아니면 자녀를

생산하는 산아기계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적 현모양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민주적 현모양처”는 여권을 자각하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부덕을 간직하는 여성”이라고 하였다. ‘봉건적’ 여성상을 비판하고 “민주적 현모양처”를 대안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국적 부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민주사회의 서양문화가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 와서 잠자고 있던 한국여성들을 흔들어 깨어주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완전히 봉건성을 벗지 못한 사상에 얽히고 뒤틀리고 한 거센 바람인지라 마치 갓 쓴 노인이 洋靴을 신고 나서는 격과도 같이 여성의 위치와 생활상은 이른바 과도기의 진현상을 나타내게 되었음은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현병진, 1957; 39-40).

이렇게 ‘동양적’, 혹은 ‘한국적’ 부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후 확산된 서구문화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의 사회담론 지형에서 현모양처는 무분별한 서구 추종주의와 대비되는 ‘미풍양속’으로서의 ‘전통’으로 묘사되었다. 50년대에는 새로운 여성 역할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문화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전통적 부덕’이 다시 주목받았다. 이 시기 담론에서 현모양처는 서구문화에 맹종하는 여성에 대한 비난과 대상을 이루면서 형성되었다(김은경, 2006; 24-25). 50년대 사회 담론에서 현모양처는 댄스에 빠지지 않고 서구문화에 물들지 않은, ‘한국적 부덕’을 겸비한 여성으로 설명되었다. 이에 현모양처는 과학성과 합리성을 무기로 한 새로운 ‘근대주부’이면서 동시에, 서구 여성과는 다른 ‘한국적 전통’을 체화한 여성상이 되었다.

이러한 담론의 영향은 교육 과정에도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학교에서 ‘한국적 부덕’을 찬미하고 예법실이나 생활관 실습을 통해 ‘전통’예절을 교육시켰던 것은 ‘전통 여성’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0

년대 여성교육에서 나타난 현모양처주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대 주부'이면서 동시에, 서구화에 물들지 않고 '한국적 부덕'을 체화한 여성상이었다고 하겠다.

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 현모양처가 구성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했다.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 본 1950년대의 현모양처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가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모양처론은 일제시기와 달리, 유교적 여성 규율을 배제함으로써 성별분업에 근거한 '근대적' 전업주부상을 이상화하였다. 1950년대 가사교과서는 일제시기 여학생 수신교과서에 등장하는 '순종', '정절', '삼종지도' 등과 같은 유교적인 여성덕목이 사라지고 직분론에 근거한 '근대적' 주부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신생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여성교육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결과였다.

둘째, 가사교과서에서 여성 직업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1950년대 현모양처론은 여성에게 가사관리자뿐 아니라 생계 담당자의 역할도 아울러 부과하였다. 기혼여성의 직업 활동은 현모양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가사교과서는 이것을 가정경제를 운용하는 '현대적' 현모양처의 임무로 수렴하였다.

셋째,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과 생활관교육과 같은 실제 교육 내용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은 '근대적' 주부상과 '전통적' 규범을 내재한 여성상을 접목한 것이었다.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은 순종적 부덕보다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여성 인재의 양성에 목표를 두었지만, 실제 교육은 여전히 현모양처주의를 중시했다. 교육이념과 실제 교육의 이중성은 50년대 처음 시도되었던 생활관 교육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생활관 교육은 가사의 합리적 설계자로서 '근대적' 전업주부를 이상적 모델로 하면서도 '전통적' 여성 규범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50년대 현모양처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은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이념에서 유교적 여성규범을 일면 강조했던 일제시기의 그것을 탈피하면서도 실제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 부덕'을 강조하는 교육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 현모양처는 가정개량과 양육을 책임지는 '근대적' 전업주부 모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서구화에 물들지 않고 '전통적 부덕'을 계승해야 하는 존재였다. 1950년대의 현모양처는 서구의 '근대적' 전업주부상과는 달리, 윤리적으로는 '전통성'을 체현하는 한편 가정을 '근대적'으로 개량하는 주부상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현모양처주의는 '근대적' 주부상을 기본 틀로 하면서도 '전통성'을 계속 차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현모양처주의의 한국적 존재방식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 과정과 실태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리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교과서>

- 石澤吉磨·常見育男(1939). **最新家事科教授法**. 東京: 創文社.
- 손정규·조기홍·표경조·주월영(1950). **가사교본3**. 동지사.
- 이흥수·윤일섭·유희경·박종환(1957a). **모범 중등가정 I**. 흥지사.
- 이흥수·윤일섭·유희경·박종환(1957b). **모범 중등가정III**. 흥지사.
- 이흥수·윤일섭·유희경·박종환(1958a). **고등학교실업가정과: 모범 고등가정 I**. 서울고시학회.
- 이흥수·윤일섭·유희경·박종환(1958b). **고등학교실업가정과: 모범 고등가정II**. 서울고시학회.
- 이흥수·윤일섭·유희경·박종환(1958c). **고등학교실업가정과: 모범 고등가정III**. 서울고시학회.
- 조기홍·현병진·권청자·안병용(1956a). **중학교 실업가정과용: 즐거운 가정생활 2**. 정음사.
- 조기홍·현병진·권청자·안병용(1956b). **중학교 실업가정과용:**

즐거운 가정생활 3. 정음사.

朝鮮總督府(1939). **中等教育 女子修身書 卷二**
 朝鮮總督府(1940). **中等教育 女子修身書 卷三**
 朝鮮總督府(1941). **中等家事教科書 卷一**.
 표경조·주월영(1960a). **이상적인 가정생활 고 I**. 장왕사.
 표경조·주월영(1960b). **이상적인 가정생활 고 II**. 장왕사.
 표경조·주월영(1956). **이상적인 가정생활 고 III**. 장왕사.

<기타>

공보처(1949). **관보** 호외, 1949.12.31.
 김두현(1959). 여자교육의 당면문제. **여원**, 1959.11.
 김병로(1957). 민법안의 근본정신-자유와 전통을 위하여. **현대**, 1957.12.
 김옥분(1955). 새 가사교육의 건설. **문교월보**, 1955.10; 이길상·오만석(2002). **한국교육사료집성(현대편) I**. 도서출판 선인.
 김하태(1959). 인간 내부세계의 파괴와 기성윤리. **사상계**, 1959.4.
 문교부(1956). 도의교육의 확립:1955년 시정업적 보고. **도의교육** 창간호, 1956.6.
 문교부(1957). **문교행정시정업적**.
 문교부(1958a). 단기4291년도 문교행정의 중요시책. **문교월보**, 1958.6.
 문교부(1958b). **문교개관**.
 서명원(1957). 여자교육문제. **국회보**, 11.
 양벽파(1958). 특집: 누구를 위한 자모회냐? -자모회의 생태. **여원**, 1958.10.
 정재인(1960). 학창을 나와 가정에 있을 분에게: 참 행복의 샘터. **여원**, 1960.3.
 현병진(1957). 여성교육의 반성. **새교육**, 1957.12.

2. 2차 자료

<교지>

경기여자고등학교(1988). **경기여고 팔십년사**.
 덕성60년사편찬위원회(1985) **덕성 육십년사**. 덕성여자대학출판부.

동덕90년사편찬위원회(2001). **동덕 90년사**. 학교법인동덕여학단.
 무학여자고등학교(1980). **무학 사십년사**.
 배화여자중고등학교(1958). **배화 육십년사**.
 성신50년사편찬위원회(1989). **성신 오십년사**.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수도여고60년사 발간위원회(2006).

수도여고60년사.

숙명여자중고등학교(1976). **숙명 칠십년사**.
 승의여자중고등학교(1963) **승의 60년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영등포여고동창회(2003). **영등 오십년사**.
 이화90년사편찬위원회(1975). **이화 90년사**. 이화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중고등학교(1962). **정신75년사**. 계문출판사.
 진명여자중고등학교(1980). **진명 칠십오년사**.

<논문 및 단행본>

고상옥·전미경(2006). 1920~30년대 가사교과서 육아단원의 유형 및 내용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2), 135-149.
 고헌경 외(1963).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은경(2006).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7-48.
 김은경(2007).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김재인 외(2001). **한국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혜경(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김혜수(2000). 1950년대 한국여성의 지위와 현모양처론. **외대사학**, 12, 435-451.
 川本綾(1999). **조선과 일본에서의 현모양처사상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신영숙(1999). 일제시기 현모양처론과 그 실상 연구. **여성연구논총**, 14(1), 101-121.
 이임하(2003). 1950년대 여성교육에서의 성차별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122, 293-327.
 이효재(1959).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 9-71.
 전미경(2004a).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현모양처의 두 얼굴, 되어야만 하는 '賢母'와 되고 싶은 '良妻'.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75-93.
 전미경(2004b). 식민지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3), 1-25.
 전미경(2005). 1900-1910년대 家政教科書에 관한 연구: 현공립

- 발행 『漢文家政學』, 『新編家政學』, 『新訂家政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1), 131-151.
- 조경원(1999). 대한제국 말 여학생용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교육론의 특성과 한계: 「여자독본」 「초등여학독본」 「녀자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0, 163-187.
- 홍양희(2000). 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만들기. **역사비평**, 52, 364-374.
- 홍양희(2001).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현모양처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5, 219-257.
- 小山靜子(1991).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 深谷昌志(1981). **良妻賢母主義の教育**. 名古屋: 黎明書房.

<국문요약>

1950년대 현모양처가 구성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했다.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본 1950년대의 현모양처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가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모양처론은 일제시기와 달리, 유교적 여성 규율을 배제함으로써 성별분업에 근거한 '근대적' 전업주부상을 이상화하였다. 1950년대 가사교과서는 일제시기 여학생 수신교과서에 등장하는 '순종', '정절', '삼종지도' 등과 같은 유교적인 여성덕목이 사라지고 직분론에 근거한 '근대적' 주부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신생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여성교육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결과였다.

둘째, 가사교과서에서 여성 직업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1950년대 현모양처론은 여성에게 가사 관리자 뿐 아니라 생계 담당자의 역할도 아울러 부과하였다. 기혼여성의 직업활동은 현모양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가사교과서는 이것을 가정경제를 운용하는 '현대적' 현모양처의 임무로 수렴하였다.

셋째,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과 생활관교육과 같은 실제 교육 내용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은 '근대적' 주부상과 '전통적' 규범을 내재한 여성상을 접목한 것이었다.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은 순종적 부덕보다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여성 인재의 양성에 목표를 두었지만, 실제 교육은 여전히 현모양처주의를 중시했다. 교육이념과 실제 교육의 이종성은 50년대 처음 시도되었던 생활관 교육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생활관 교육은 가사의 합리적 설계자로서 '근대적' 전업주부를 이상적 모델로 하면서도 '전통적' 여성 규범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50년대 현모양처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은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이념에서 유교적 여성규범을 일면 강조했던 일제시기의 그것을 탈피하면서도 실제 교육 내용은 여전히 '전통적 부덕'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1950년대 현모양처는 가정개량과 양육을 책임지는 '근대적' 전업주부 모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서구화'에 물들지 않고 '전통적 부덕'을 계승해야 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의 현모양처는 서구의 '근대적' 전업주부상과는 달리, 윤리적으로는 '전통성'을 체현하는 한편 가정을 '근대적'으로 개량하는 주부상이었다고 하겠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10월 20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1월 22일